

20240724 설교자회의

1. 본문: 신명기 17:14~20절

제목: 다른 목적으로 세운 왕

대지 1. 백성이 원하는 왕

2.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한줄 요약 “이스라엘의 왕정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이 서는 나라다.”

연구

모세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왕을 세워야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왕을 세우려 했다면, 사무엘상 8:19~20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주장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사람을 차출하여 한 곳에서 만나, 전쟁을 치르는 국가였습니다. 형태로 분류하면 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을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왕을 구한 것’입니다. 왕이 있어 상시 군대를 훈련시키고, 전쟁이 나면 자신들이 대신해 왕과 왕이 훈련시킨 군사들이 나가 싸워달라는 요청이, 왕을 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열핏 들으면 논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군대를 둔다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각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발맞추어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그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세우려는 왕을 세상의 여느 왕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군을 통솔하며 나라를 지켜 줄 자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은 그도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이스라엘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의 왕을 구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국과는 달라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며, 군사력을 너무 키워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유혹당하지 말아야 하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여느 왕이 자신의 왕권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해 군대와 많은 여자와 은과 금으로 치장된 궁전에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왕이 갖춰야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갖춰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묵상하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들과 형제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 물러났으며, 다윗도 밋세바 사건과 인구조사로 인해 본인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왕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세운 왕들 모두 자신을 드러내고 힘을 자랑하며, 권력을 휘두르는데만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었습니다. 그는 군마를 두시기보다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은금으로 자신을 치장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온 몸을 뒤덮어 이 세상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왕은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워질 왕이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드러내며, 은금과 많은 여자들을 자랑하며 나의 위대함과 배경을 자랑하려는 왕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는 왕으로 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왕을 점검해봅시다.

2. 본문: 신명기 25:17~19절

제목: 자비를 베풀수 없는 것

대지 1. 아말렉

2. 죄

한줄 요약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말렉이며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다”

연구

신명기 25: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언급되는데, 그 맨 마지막에 아말렉이 언급된 것입니다. 11~12절에는 ‘악한 여자’에 대해서, 13~16절은 ‘속이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17~19절까지 ‘아말렉’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 ‘뒤쳐진 힘없고, 연약한 악한 자들’을 공격한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또 아말렉은 오랜 시간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말렉의 멸망을 발람이 예언하였지만, 사울 왕에게 주어진 진멸의 기회를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사울왕도 아말렉 청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힌 이유의 근거는 26:18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를 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말렉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두려워했어야 하나면 ‘애굽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이고,

진짜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사건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워 떨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겁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주석은 이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가장 뒤쳐져 따라오는 자들을 공격하여 무자비한 살육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유가 딱히 있던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족속보다도 심지어 모압이나, 암몬,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말렉에 대한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천하에서 기억함을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말렉을 짓이겨서 씨를 없애리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과연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면 아말렉을 만날 일이 없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족속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뜻을 확장하면 “그 땅에 광연한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아말렉에 대한 심판은 단지 아말렉이라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보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비를 베푸지 말아야 할 대상을 보면 악한 여인과, 남을 속여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죄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도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죄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볍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해하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본문: 신명기 30:1~10절

제목: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길

대지 1. 기억하여

2. 돌이켜라

한줄 요약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길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다. ”

연구

29:27~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

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현재 이스라엘이 아직 뺏히지는 않았지만 뺏혀 다른 나라로 잡혀 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면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복된 약속과 그 지켜주심과 함께 하시는 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1절에서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말하면서 타국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라는 것이 ‘지금 모세의 이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더 앞으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격과 조건에 합당한 자여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낸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모세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의지를 발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을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회개도 분명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예레미야 30: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요 백성 삼아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샘의 근원과 늘 가까이 있으면 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며 돌아서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있다면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